

Love yourself







2008 자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은 지역사회내 자살 문제 및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청소년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건강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개최되었다.





쿵쾅쿵쾅,  
이 순간에  
당신의 실  
내일을 향



고민하다  
내민 손  
잡아주는  
예쁜 손



# contents

- 8 추진 개요
- 10 심사 후기
- 12 당선작 보기
- 46 공모전 출품자 리스트

Love yourself 2008 자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 당선작 작품집  
발행일: 2008년 12월 1일  
발행인: 이영문 발행처: 수원시자살예방센터 | [www.csp.or.kr](http://www.csp.or.kr)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134-3(3층) Tel. 031-228-3279  
인쇄: 명조기획(031-257-8173)  
\*\*\* 이 작품집의 저작권은 수원시자살예방센터에 있습니다.

**1. 개최 목적**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내 자살문제 및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청소년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건강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2. 추진개요**

- 공모기간 : 2008년 9월 16일 ~ 26일
- 주최 : 수원시, 수원시교육청
- 주관 : 수원시자살예방센터
- 후원 : 경기방송, 아주대학교 의료원
- 참가대상 : 수원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심사위원 : 이영문 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 / 전세훈 수원시장안구보건소장  
양훈도 SBN프로덕션 본부장 / 홍순달 경기방송국 보도국장  
신동근 용인정신병원 진료과장 / 전진희 수원고등학교 국어교사  
홍창기 권선고등학교 미술교사
- 발표 : 2008년 10월 11일
- 당선작 : 표어 16점, 포스터 15점

**3. 주제**

- 자 . 살 . 예 . 방 / 생 . 명 . 사 . 랑
-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알리는 내용
-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하는 내용
-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자는 내용
- 자살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
- 자살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홍보하는 내용

**4. 작품규격**

- 표어 : 32자 이내 자유롭게 원고지 또는 A4용지에 작성함
- 포스터 : 4절 캔트지 (39.5cm X 54.5cm). 포스터칼라 또는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함

**5. 입상자**

		표 어	포 스 터	
수 원 시 장 상	정새롬	매 현 중 1학년 8반	박한선	수일여중 3학년 8반
경 기 방 송 사 장 상	오소정	매 현 중 1학년 3반	서태웅	정 천 중 3학년 1반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상	박소희	매 현 중 2학년 14반	박병찬	영 통 중 1학년 3반
	박은솔	수일여중 1학년 5반	유수현	매 현 중 1학년 10반
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상	나현정	동 성 중 1학년 3반	황종우	수 원 중 3학년 6반
장 려 상	권하늘	정 천 중 3학년 2반	김세훈	태 장 중 1학년 6반
	박민지	매 현 중 2학년 8반	정하나	천 천 중 3학년 14반
	박수연	동 성 중 1학년 5반	최수지	고 색 중 2학년 7반
	손윤아	매 현 중 3학년 8반	최지은	매 현 중 2학년 4반
	이선정	정 천 중 1학년 6반	홍태화	수 원 중 3학년 5반
입 선	김남희	매 현 중 3학년 1반	박세진	산 남 중 1학년 13반
	김연주	정 천 중 1학년 3반	유수진	수일여중 2학년 6반
	남상윤	매 현 중 2학년 7반	이민경	권 선 중 1학년 6반
	박은희	매 현 중 1학년 6반	이준호	권 선 중 2학년 9반
	장찬영	동 성 중 1학년 2반	이지은	조 원 중 2학년 4반
	조새미	매 현 중 1학년 11반		

## 심사후기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되는 LOVE YOURSELF 자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은 좀더 많은 작품들, 좀더 수준 높은 작품들이 응모되어 좋은 작품을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살예방이라는, 어떻게 보면 낯설고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 낼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이번 공모전 참여의 계기로 그들의 삶과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영문** 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  
중학생들이 자살예방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지난해보다 참여 작품의 수도, 수준도 모두 높아졌다. 지금은 작은 공모전이지만 훗날에는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전세훈** 수원시장안구보건소장  
자살예방이라는 주제는 청소년들에게 무겁고 두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살예방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작품들을 보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자신 뿐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을 생각하라는 메시지가 참 많은데 이처럼 사람은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임을 생각하게 된다. 혼자라고 느껴지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괴로운 그 순간, 내 곁에 누군가 있음을 느끼고 우리 사회가 서로서로를 위해 서로가 존재하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양훈도 SBN프로덕션 본부장

전년에 비해 응모작의 수준이 높아졌다. 자살의 사회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포착하여 애쓴 우수작이 늘었다. 특히 표어부문에서 전형적인 4.4조 16자 형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난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요즘 청소년들의 누리집 글쓰기 방식 탓이 크겠으나, 독창적인 표현을 찾으려는 의욕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래도 날말 하나, 토씨 하나까지 섬세하게 다듬으려는 고민이 약간 부족한 듯해 아쉽다. 선정된 작품들이 널리 알려져 자살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홍순달 경기방송국 보도국장

1회 대회 때보다 전반적으로 작품수준이 높아졌다. 특히 우수한 작품이 많아 본상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쉬운 것은 표어 부분에서 충분히 본상을 수상할만한 몇 작품이 있었으나 애매한 표현을 써 탈락했다.

신동근 용인정신병원 진료과장

이번 자살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전은 작년에 이어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은 수원시 소재 중학생들이 공들여 만든 작품들로 작년보다 작품 수나 작품의 질적인 면에서 한 차원 더 우수했다. 또한 학생들만의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도 돋보였다. 공모전에서 선발된 작품들을 통해 자살하려는 충동을 가진 학생은 주변의 도움을 구하고, 또 가족과 선생님과 친구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치료를 받도록 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자살의 갈등을 이겨내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전진희 수원고등학교 국어교사

작년에 비해 많은 작품이 응모되었고, 그에 따른 작품수준도 높아졌던 것 같다. 표어 부문에서는 작품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깊이 있는 사고가 느껴졌다. 다만 아쉬운 점은 표어 부문에서 단어선택을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과 표어특유의 리듬감을 살렸으면 했다. 입상작이 널리 홍보되어 자살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홍창기 권선고등학교 미술교사

이렇게 의미있는 자살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전에 심사로 참가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중학생정도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그것도 자살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심사를 하면서 이게 정말 중학생들의 작품이 맞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다. 그만큼 독창적이고 다양한 주제들이 많았다. 갈수록 풍성한 공모전이 되기를 기대한다.

Love yourself

2008 자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

당선작

표어 16점

포스터 15점

Love

yourself

매현중학교 1학년 8반 정새롬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청소년들의 경우 순간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충동적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에도 자신의 심장은 내일을 향해, 삶을 위해 뛰고 있다.  
나에게도 내일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쿵쾅쿵쾅, 들리지 않나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심장은**  
**내일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박한선 수일여자중학교 3학년 8반

포스터를 그리면서 나 자신이 자살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었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싶었다.  
내 생명은 한 조각 휴지처럼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중히 가꾸어 나간다면 지금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생명**  
**함부로 버리는**  
**일회용 휴지가 아닙니다.**

매현중학교 1학년 3반 오소정

내가 쓴 표어가 조금이나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요즘 내 또래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만 더 자신을 아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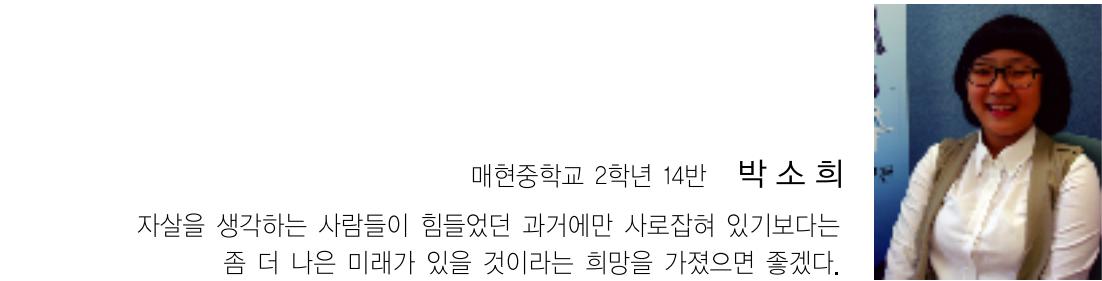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돌보는 사람만이**  
**행복과 꿈을 지킬수 있습니다.**



서태웅 정천중학교 3학년 1반

어둠 속에서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낸다면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관심들이 모여 서로서로를 향해 따뜻함을 보낸다면 그림에서처럼 작고 연약한 한 생명이라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결코 혼자 두어선 안되며 우리가 함께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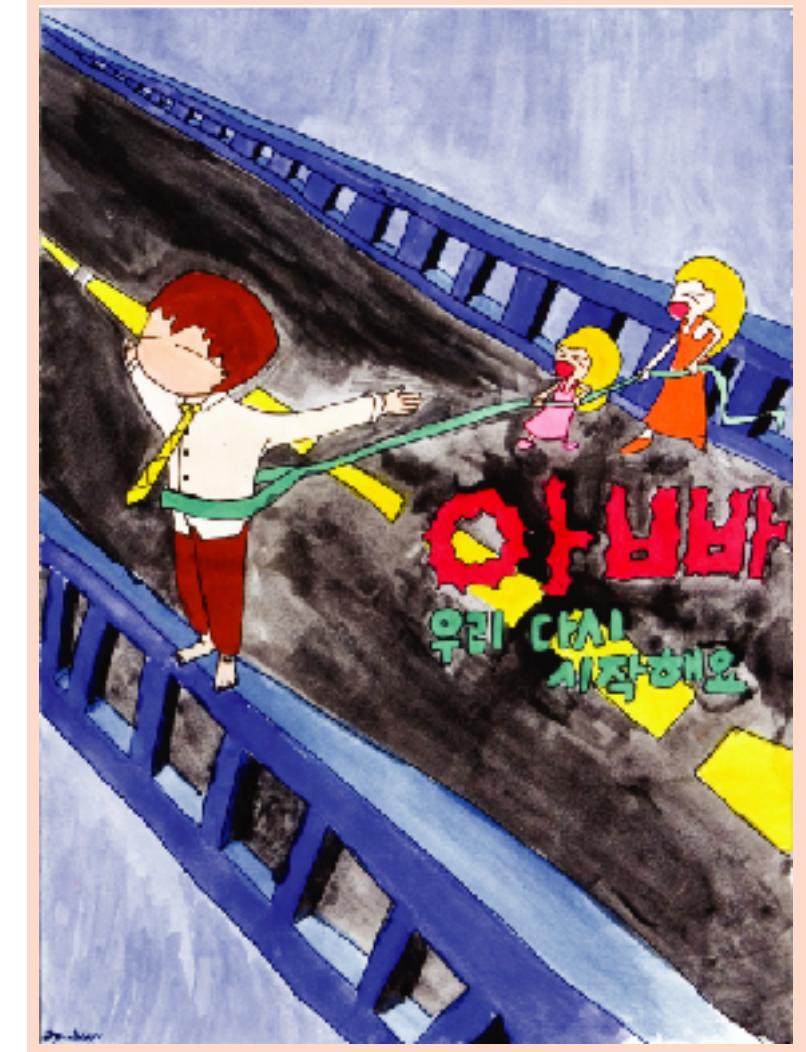




매현중학교 2학년 14반 박소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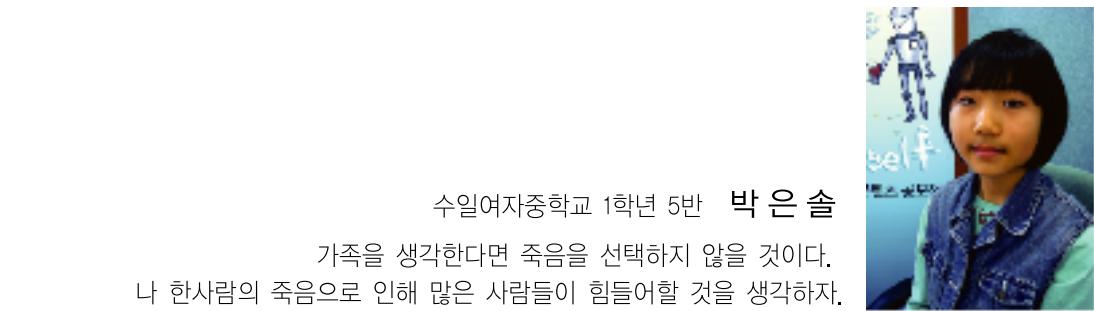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힘들었던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좀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당신의 과거에 무르 끓는다면,  
당신의 미래에 무르 을  
끓는 것입니다.



박병찬 영통중학교 1학년 3반

내가 그린 포스터가 한 사람의 마음만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좋겠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가족, 친구, 사회 등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자살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통에 의한 자살,  
가족은 그 고통을 지고 산다.



유 수 현 매현중학교 1학년 10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었다. 쉽게 인터넷에 접속해서 자살사이트를 통해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럴 때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는 경고문을 통해 자살충동을 막을 수만 있다면...



동성중학교 1학년 3반 나현정

아름다운 사람지킴이 7기로서 어렵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를 주저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자.



고민하다 내민 손  
잡아주는 예쁜 손,  
예방하는 생명 지켜주는 생명



황종우 수원중학교 3학년 6반

인생은 한 편의 영화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힘들어도 그건 영화의 한 장면인 것처럼 인생의 한 부분이므로 시간은 지나갈 것이고 훗날 또 다른 사건들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 당장의 삶이 힘들다고 삶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한다.



정천중학교 3학년 2반 권하늘  
절벽은 어려움, 고통을 상징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변에 도움의 손길들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수원시자살예방센터처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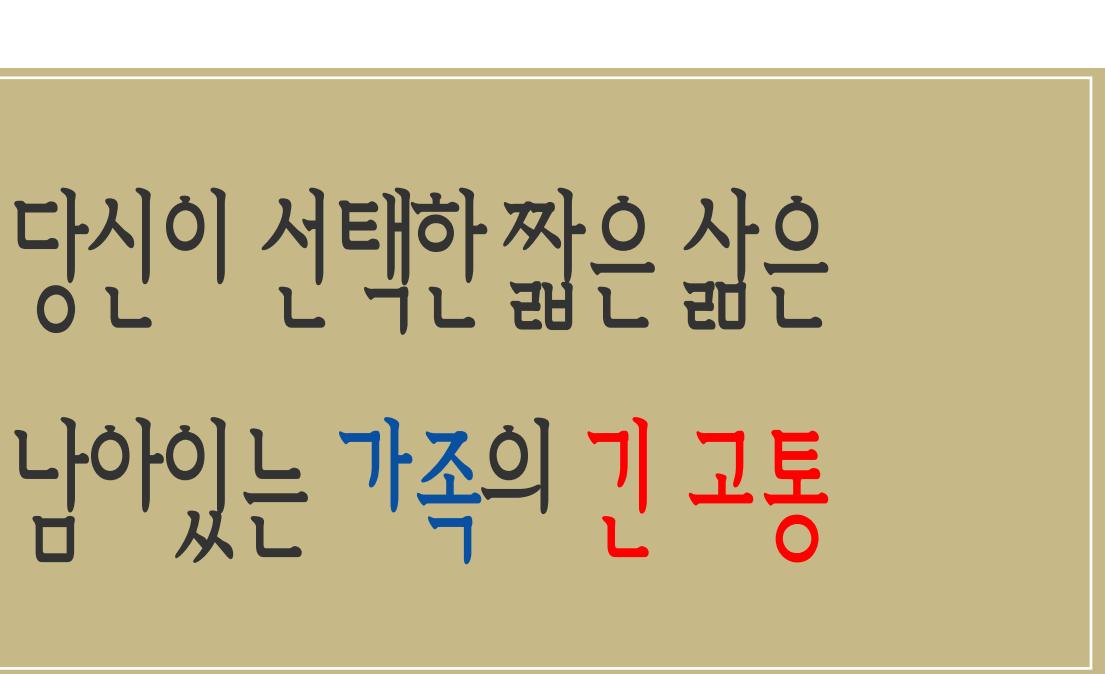
누가 당신을 떠밀고 그 앞  
절벽이라도 이세상 누군가가  
네 손을 잡아줄 거야.



김 세 훈 태장중학교 1학년 6반

장미는 생명, 두 손은 그 생명을 소중히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검은 배경은 외로움 혹은 소외감을 나타낸다. 이 그림을 통해 주변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두 손을 내밀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매현중학교 2학년 8반 박 민 지

누군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표어를 작성하였다. 다시한 번 생각해보기를.



정하나 천천중학교 3학년 14반

이번 기회를 통해 자살예방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자살을 생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타인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찾았으면 좋겠다.



## 장려상



동성중학교 1학년 5반 박수연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청소년자원봉사자인 아름다운지킴이로 활동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작으나마 나의 생각을 실천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스스로가 내 생명을 소중하게 아낀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아껴줄 수 있을 것이다. 서로서로가 아껴주고 관심을 갖는 사회라면 자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사랑으로 얻은 생명

# 사랑으로 간직하자.



최수지 고색중학교 2학년 7반

지난해에도 참가했었는데 이번에 또 참가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다. 힘들게 꽃을 피우는 민들레를 보며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 힘들게 잘 가꿔왔는데 포기한다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다.



매현중학교 3학년 8반 손윤아

자살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이라고 한다.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마저 아프게 하니까. 우리는 자살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문에 이러한 표어를 작성하게 되었다.

**자살,  
고통의 끝이 아닌 또다른 고통의 시작**  
**자살,  
결코 혼자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최지은 매현중학교 2학년 4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주변사람이 자살했을 경우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시간이 흘러서도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자살하지 않았으면...





정천중학교 1학년 6반 이선정

공모전 참가를 통해 자살예방 사이트나 관련책자도 살펴보는 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의 실천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자살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관심의 사회풍토 생명중시 사라지고  
관심 속의 밝은 사회 귀한 생명 지켜낸다.



홍태화 수원중학교 3학년 5반

평소에 자살예방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의 생각을 표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즐거운 마음으로 공모전에 참여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 환경들의 애정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내 생명은 나 한사람만의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버린 이 세상이  
가족에겐 슬픈 세상

매현중학교 3학년 1반 김 남 희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 가족이 영원히 불행해질 수 있으므로  
자살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란다.

박 세진 산남중학교 1학년 13반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색깔의 꿈을 가지고 있다. 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삶은 소중하다.  
이룰 수 없는 것이라도 말이다.



정천중학교 1학년 3반 김연주

우리는 가끔 힘이 들 때 자살이라는 단어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커서 행복하게 웃고 생활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힘을 내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작성했다.

우리의 **갈등**과 **고민**은  
행복한 **미래**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유수진 수일여자중학교 2학년 6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와 함께해주는 희망의 존재는 어디에든 있다.



매현중학교 2학년 7반 남상윤

죽고싶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어두운 밤, 빛나는 별이 있듯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희망에 찬 미래를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내딛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일 것이다.

어두운 밤에도 **별**은 빛납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보이나요?

이민경 권선중학교 1학년 6반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우리도 관찰과 사랑 속에  
삶의 뿌리가 튼튼해져 거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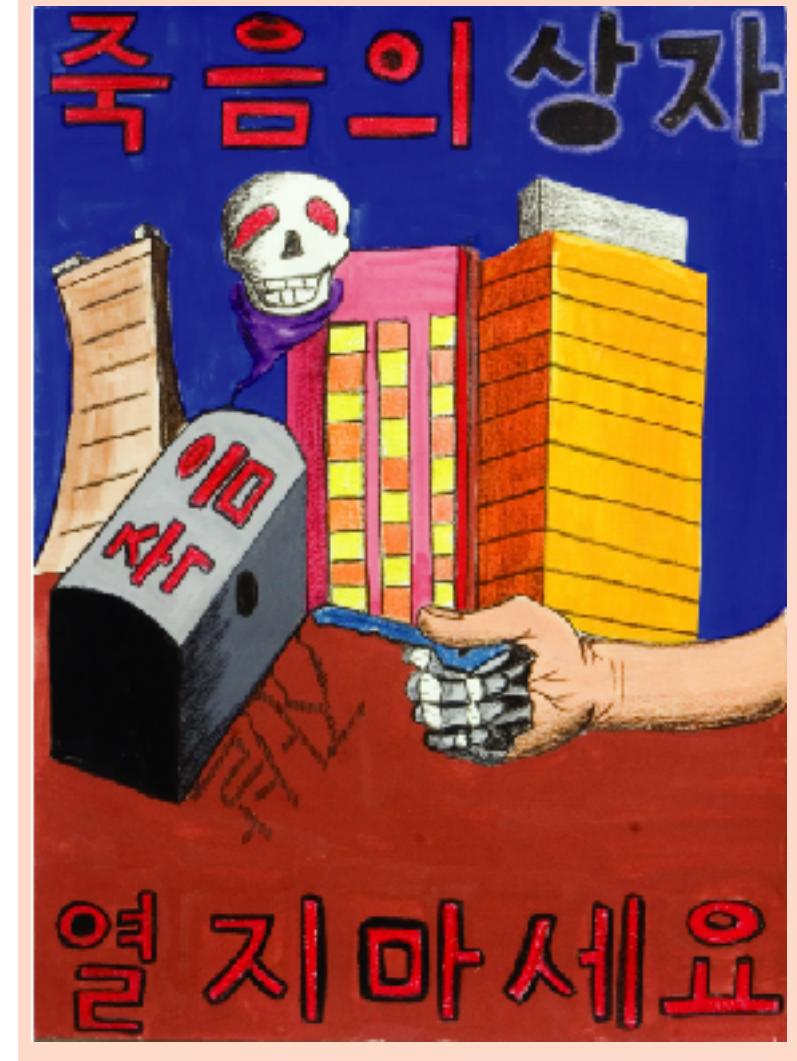
매현중학교 1학년 6반 박 은 희

여러 가지 힘든 고민들로 인해 청소년들이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들었다. 그런 때에 친구나 선생님, 부모님과 대화나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잘못된 선택은 가족 불행  
상담과 대화, 내 고민 해결**

이준호 권선중학교 2학년 9반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안타깝다.  
자살, 죽음의 상자. 아무도 열지 않는 날이 오기를...



동성중학교 1학년 2반 장찬영

우리가 사는 인생은 때론 기쁘고, 때론 슬프기도 하다. 당장은 힘들어도  
기쁜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젠가 나를 위한 빛은 꼭 빛날 것이다.

지금은 깜깜하지만, 참아요.

곧 빛이 와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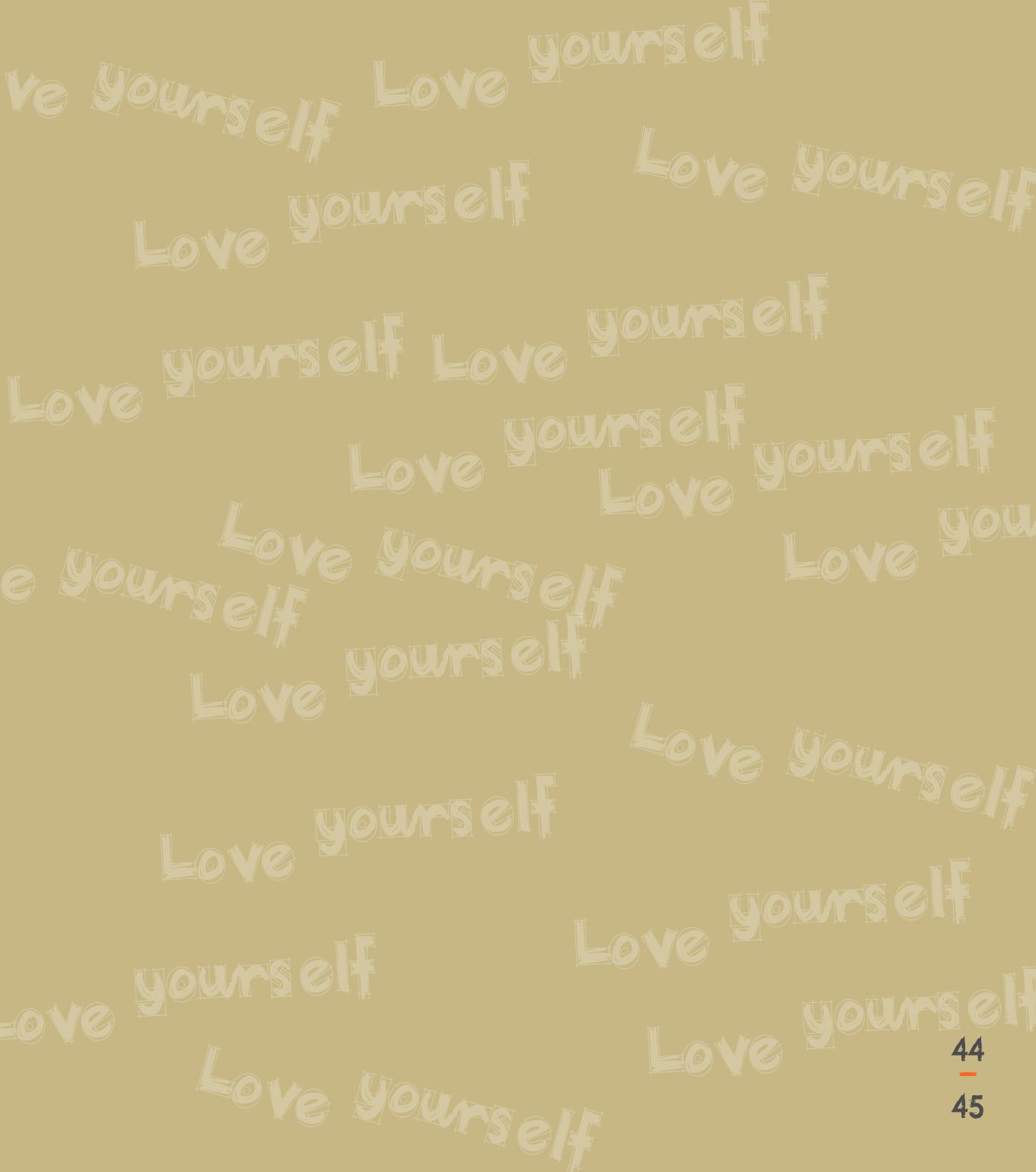
이지은 조원중학교 2학년 4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금붕어 한 마리의 생명도 돌봄과 사랑으로 지켜질 수 있듯, 우리들의 삶도  
서로를 향한 애정을 통해 지켜질 수 있다.

매현중학교 1학년 11반 조새미

단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모든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순간의 안식으로 가는 길은  
미래의 꿈을 포기한 대가이다.



**2008  
자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이번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한 모든 참여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b>표 어</b>	남수원중 백진수	매현중 김남희	송원중 한규희
	남수원중 정환엽	매현중 김민진	수일여중 김도연
	남수원중 조현준	매현중 남상운	수일여중 박은솔
	동성중 권순영	매현중 박민지	수일여중 박지영
	동성중 나현정	매현중 박수연	수일여중 서윤미
	동성중 박수연	매현중 박은희	수일여중 송성진
	동성중 윤예담	매현중 손윤아	수일여중 원지은
	동성중 장찬영	매현중 이명재	수일여중 이유경
	매원중 김송이	매현중 정새롬	영복여중 이혜영
	매원중 이대규	백현중 이재인	영일중 윤진형
	매원중 이태호	백현중 최희정	정천중 김연주
	매원중 조형택	산남중 신영선	정천중 권하늘
	매향여중 이하니	산남중 최은수	정천중 류새미
	매현중 박소희	산남중 허민지	정천중 이선정
	매현중 오소정	삼일중 추연진	창용중 박성준
	매현중 조새미	상촌중 박선영	

## 출 품 자 리 스 트

<b>포스터</b>	고색중 이승민	매현중 김소정	수일여중 이종은		
고색중 최수지	백현중 이재인	영일중 윤진형			
곡반중 경혜수	백현중 최희정	영통중 박병찬			
권선중 이민경	산남중 강다솜	영통중 최영아			
권선중 이슬	산남중 문지인	이목중 손아름			
권선중 이준호	산남중 박세진	정천중 고유빈			
권선중 홍주실	산남중 이다영	정천중 서태웅			
남수원중 정환엽	산남중 이용송	정천중 정재은			
남수원중 조현준	산남중 최은수	정천중 송지원			
남수원중 백진수	산남중 최혜령	정천중 용지수			
동성중 나현정	산남중 한겨레	조원중 진주연			
동성중 박수연	상촌중 최이슬	조원중 이지은			
동성중 박영은	서호중 김미진	창용중 박성준			
동성중 권순영	서호중 박다솔	창용중 박한솔			
매원중 조형택	서호중 박유영	창용중 이유진			
매원중 김송이	서호중 안세희	천천중 정하나			
매원중 이태호	서호중 여수진	칠보중 방세희			
매현중 권재연	서호중 이기은	칠보중 신연수			
매현중 김현규	서호중 이보람	태장중 김세훈			
매현중 박혜란	서호중 조아라	박선예			
매현중 심영아	서호중 김한슬	박채연			
매현중 유수현	수원중 홍태화				
매현중 이승미	수원중 황종우				
매현중 조다솜	수일여중 남민정				
매현중 최지은	수일여중 박한선				
매현중 홍지희	수일여중 유수진				
매현중 경제은	수일여중 은선우				



수원시자살예방센터  
Centre for Suicide Prevention

442-851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134-3번지 3층  
TEL. 031-228-3279 [www.csp.or.kr](http://www.csp.or.kr)



